

올바른 평가와 채찍으로
참여의식 고취를



실무진의 입장에서

섭외공보부장 成 明 淑

누구나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태양이 뜰 날을 꼭 내일에다 두고 오늘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 그런데 그 환한 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동시에 있다는 논리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을 수락하는 심정의 「메카니즘」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늦으리”란 말이 절박한 호소력을 지니는가 하면 “서둘지 말라 내일이 있으니까”하는 식의 안도와 여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일이면 늦는다”는 이 짧은 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에게나 깊은 감회로서 작용한다.

조그마한 성의 부족으로 너와 내가 끝끝내 오해를 풀지 못하고 서덕서덕한 결별을 해야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며 회원과 회원(실무)과의 관계에선 성의있는 협조와 목적을 위한 참여가 반드시 평형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공동목적과 공동의식으로 조직화된 단체활동에 있어서 아직은 홍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싶다. 전문지, 일간지, 「텔레비죤」, 「라디오」등 「매스·미디어」의 활용에 있어 일반사회외의 이면엔 아직도 우리를 (간호) 외면하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바탕위에 설 때 까지, 보다 효과적인 영향이 미칠 때 까지 —스스로 우리의 매개체가 될 때— 집행부의 실무자에게만 그 수행의 과정을 의뢰하고 기대함으로 끝나지 말고 보도된 기사의 결과에 기울이는 관심만큼이나 올바른 평가와 채찍으로 밝은 전드를 위해 협조적인 참여의식을 높여 주기를 바라고 싶다.

국제적인 간호수준으로 미국, 캐나다를 위시한 유럽등으로 진출되는 지금, 해외취업을 위해 막연히 협회에 기대하기 이전에 왜 주동력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임할때 물리적 공간으로 빚어지는 어려움이나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이야기하고 싶다.

올해 한해동안 뛰었던 땀박질 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뛰리라 다짐해 보며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회원과 회원이 각(angle)이 서로다른 삼각형이 되어선 안 되겠으며 「내일이 있으니까」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이미 어제 끝내버린 현명으로 큰소리가 나도록 너의 손과 나의 손을 마주쳐 보도록 합시다.

